

2025년
추모 예배



www.junahim.kr
02-2237-5009

주내임교회

추모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인도자

지금부터 故 000 씨(아버지, 어머니)의
00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통일 469)

보통으로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평화는 깊이 묻히인보배로 다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복을받음이 라
 4. 이 땅위의 험한길 가는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 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 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네
 우리 모두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 네

후렴

평 화 평 화로다 하늘 위 에서 내려 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소 서

기 도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신약 326쪽) 말은이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나눔 ‘하늘 소망’ 말은이

말씀나눔

하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땅에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며 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은 위에 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에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항상 마음에는 천국 시민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 인생의 나그네길을 마감하고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세상과 역사의 종착역이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었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이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

인도자

49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일 543)

보통으로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아갑니 다
 2. 괴롭고 죄악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아갑니 다
 3. 의심을 품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아갑니 다
 4. 험악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아갑니 다
 5. 내 주를 찬양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아갑니 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합니 다
 빛과 고난을 참기 위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니 다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오라 내게 하소서

후렴

내 주여 내 맘 불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